

5월 1주
익히지 않으면 마음에 때가 묻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정에 때가 끼인다. 게으른 것은 몸의 때가 되고 방만한 것은 일의 때가 되나니.
(法句經·진구품 267절)



폭력정권 퇴진-민주정부 수립 시급

위기 일보일척 치달던 5월경국이 40년의 6공위대시위대가 참가한 5-18국민대회를 거처 19일 박승희 양 사망, 20일 광주시인 권정수씨의 진압경찰폭력에 의한 생명위독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2의 강경대 살인정국'으로 옮겨가고 있어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국이 날로 악화되는 것에 아랑곳 않고 현정권은 내각총사퇴, 백골단해체, 책임자처벌을 미룬채 광역선거거의 위기정국 탈피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18은 '민중통곡'이 앞장선다

본교생 5백여명은 18일 정오부터 도서관앞에서 국민대회 출정식을 가진 뒤 시위로 나섰다. 이어 오후 3시 서남중원, 서노협등 노동자·학생 1천여명이 신계계와 도로를 점거하고 시정진출을 시도했으나

5월 시위 관련 부상-연행자 지원 잇따라 일일차집·지지방분등 '작은투쟁' 몸소 실천

5·9투쟁과 5·18투쟁으로 부상·연행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각학과외의 일일차집, 지지방분등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군 치료와 노경권퇴진'을 위한 국문과 비상대책위(비대위)는 지난 9일 김대중군이 다친 이후에 학교측과 치료비부담 합의와 가두모금운동, 대시민홍보운동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학교측과 2차례의 모임을 통해 △차 치료비 전액부담 △의료보험 처리가 안됨시 추징금 전액부담 △6개월후 제수술비 전액부담 합의사항을 내놨다.

또한 비대위는 지난 20일 광복상중회를 소집해 그동안의 활동성과와 평가,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시위를 주도했다.

25일까지 '노태우정권퇴진' 총력투쟁

강경대군 시찰과 노태우가 경찰의 저지로 무차별 난사하기 시작하면서 시위대가 5만여명으로 늘어났다. 밀고 밀리는 공방이 계속되면서 4시30분경에는 회현고가도에서 진행경1백여명이 무장해제 당하기도 했다. 신계계 앞에서 5시간의 공방 끝에 경찰이 밀려 오후 8시에는 명동, 충무로, 남대문으로 이동, 시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본교생 1백여명은 중부경찰서앞으로 몰려가 "중부서전경·동국대학생 하나되어 노태우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10여분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음날 새벽2시까지 계속된 가두시위에서 본교생들은 검은 바탕천에 흰글씨로 '민중통곡'이라는 깃발을 날리며 출발 선두에서

가시적 내각개편으로 인한 광역선거 허상깨자

정부·여당은 보안법의 날치기 통과, 5월경국의 타격을 목적으로 양심수석방, 가시적 내각개편을 단행하고 6월초 광역선거 일정으로 돌입해 5월의 민중투쟁을 무마화하고 장기집권의 야욕을 키우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본부의 가담과 함께 전대협 김중석 의장을 비롯한 대선후보의 간부 1백50여명에 대한 일제 검거에 나서는 한편 대학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민주노동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합법화 하고있다. 이처럼 폭력정권의 본질을 은폐한 채 오히려 장기집권과 내각개편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민중' 해체 노태우정권 퇴진'의 목소리는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광역선거에서 보수야당의 전진과 비판의 선을 명확히 하며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대학회의를 이용해 25일 총력투쟁으로 연정권의 기반적인 정국탈피에 쐬기를 날려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단일한 대오를 요구하고 있다. 즉 노

경권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는 굳건한 '반민중당, 반노태우' 전선의 구축이다. 우리는 '해체 민중당, 퇴진 노태우'의 구호 아래 하나가 되었으나 하나의 대오로 서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특히 보수야당)유지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분열양상을 보였다. 이의 타개를 위해 '민주대연합' 건설이 제기되며 야당은 자신들의 광역선거 지분확보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민중과 단결해, 민주야합 타파를 위해 '민주대연합' 깃발아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투쟁을 활성화하자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고교생 시국토론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범국민적인 성토가 결집되는 시국토론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단위와, 단위조직 체계 속에서의 시국토론회 개최와 대 국민홍보를 위한 연대투쟁, 1인 1편지쓰기, 스티커붙이기등의 단위투쟁과 함께 국민대회 집결투쟁등의 단위에서 결사하고 투쟁하여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힘을 발산해야 할 것이다. (남철우 기자)

민방위 훈련 반대투쟁 전개

민방위훈련 반대투쟁이 지난 15일 오후1시부터 학생회관앞, 대한국경앞 도로등에서 학생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개됐다.

이날 반대투쟁은 민방위훈련의 허구성 폭로, 6공의 민방위훈련을 이용한 지베이데올로기 공세 반대투쟁 내용으로 이날 오후1시 학생회관앞에서 반대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2시 반대투쟁 결의대회를 울리자 학생 50여명은 스크림을 짜고 학생회관에서 대한국경까지 뛰어가며 구호를 외치는 등 대시민전진에 나섰다.

이이 대한국경앞 차도를 점거, 시민들에게 민방위훈련반대투쟁 유

인들을 나누어 주며 30분동안 선전전을 거쳐 대피중인 시민들이 인도로 나와 같이 호흡해 주기도 했다.

정명호군등 4명 구속

지난 13일 민자당중앙당사 기습점거 사건으로 연행된 정명호(인철 4)군등 전대협 구국결사대 3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민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 사건으로 연행된 김국현(경태)군은 한방초지회 지니 16일 불려났다.

한편 총학생회 부위원장(사회 4)군등 6개 대학 사회부장은 민자당점거 사건공모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다.

해외파견 교수선발 교육부서 경비 지원

교육부는 지난 17일 91년 국비해외파견 연구교수 선발예정자 4명을 최종결정하고 교육부에 발표했다.

선발예정자를 보면 △김영순(화학) =미국 텍사스대학에서 오는 12월부터 92년 12월 스즈키(법학) =서울 캐톨릭대학에서 오는 9월부터 92년 9월 △김석승(경영학)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오는 12월부터 92년 12월 △장재호(경제·수학) =캐나다 McMaster대학에서 오는 9월부터 92년 8월까지 연구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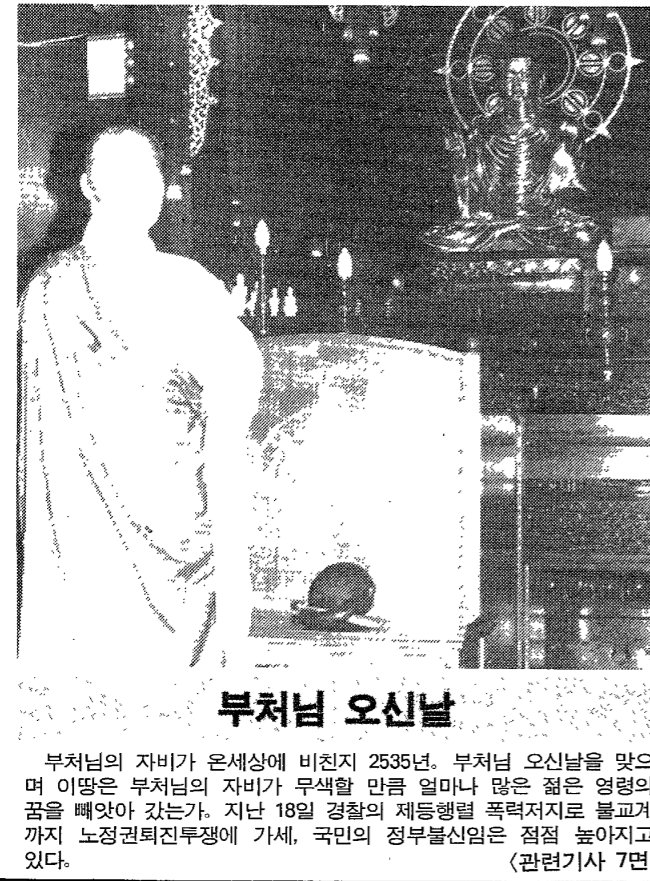
한편 이번 선발된 연구교수는 해외연구기간중 사용되는 일제 경비를 교육부에서 지원받는다.

해외파견 교수선발 교육부서 경비 지원

교육부는 지난 17일 91년 국비해외파견 연구교수 선발예정자 4명을 최종결정하고 교육부에 발표했다.

선발예정자를 보면 △김영순(화학) =미국 텍사스대학에서 오는 12월부터 92년 12월 스즈키(법학) =서울 캐톨릭대학에서 오는 9월부터 92년 9월 △김석승(경영학)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오는 12월부터 92년 12월 △장재호(경제·수학) =캐나다 McMaster대학에서 오는 9월부터 92년 8월까지 연구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선발된 연구교수는 해외연구기간중 사용되는 일제 경비를 교육부에서 지원받는다.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의 자비가 온세상에 비친지 253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으며 수많은 부처님의 자비가 무색할 만큼 얼마나 많은 젊은 영령의 꿈을 깨어났는가. 지난 18일 경주의 제등행렬 폭력지지로 불교계까지 노경권퇴진투쟁에 가세, 국민의 정부불신임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수계대법회등 초파일 봉축 '다비제도' 주제로 학술 세미나도

불기253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동국인수계대법회, 학술세미나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지난 16일부터 교내에서 치뤄졌다.

동국인수계대법회 2535년 부처님오신날기념 전 동국인수계대법회가 지난 16일 오후2시부터 교수·직원·학생불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각원 대법당에서 열렸다.

수계의식은 삼귀의례, 반야심경, 인레사 전장·수계자 후장의 삼보및 계사 청에 전제사로부터 계의 의의와 항복해설을 담은 개도(開導)가 있는 다음 참회, 연미, 삼귀의, 수계자 1백73명에 대한 수계 및 계정 수여, 정권, 발원문낭독, 사용승인 순서로 진행됐다.

오찬대중사는 개도를 통해 기원5계와 심승계에 대해 심화하면서 부처님의 계율에 대한 목적·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계정수여에서는 최세화(국어교육)교수불자가 수계자를 대표했다.

학술세미나 부처님오신날기념 학술세미나가 '국도의 효용적 활용을 위한 불교다비(화장)제도의 재조명'을 주제로 지난 17일 오후4시 교수·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국관(L101)에서 열렸다.

오홍석교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토지의 제한, 경제적 이용에 따른 묘지확보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할 당위성을 안고 있는 이상 묘제에 관한 전면검토와 현행 대안제정이 요구되는 때"라고 지적하고 "불교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본교에서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木村清孝교수는 "일본에선 화장제가 원칙이라고 할만큼 정착되어 있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하며 "국토가 좁은 나라일수록 이의 효용적인 활용을 위해 화장제의 권장이 필요하다"며 일반 상례의 화장제의 당위성을 밝혔다.

부처님 오신날 기념 법요식이 어제(21일) 오전9시 민방련 총장, 최원경 강사원장등 교수·직원·학생불자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각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요식은 헌화, 관공, 정각원장의 봉축사, 임경, 정각원장의 봉축법어,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요식 후 정각원 후원에서 다과공양도 치뤄졌다.

이들은 오월과 함께 잊혀지는가



서울·경주 '대동제' 28일부터

서울·경주대동제가 오는 28일부터 문화행사, 연대사업 등 다채로운 행사로 치뤄진다.

서울대동제 91복막대동제마당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근교내 일원에서 열린다.

총학이 기획한 전체 행사를 보면 전야제가 오는 27일 오후5시 통일노래한마당, 개막제등을 내용으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또 동국학원 소속 단체 화합을 위한 동국가족 한마당이 28일 대운동장에서, 전교조와 노조단체등이 참석해 연대사업의 기쁨을 마련하는 민중대동제마당이 29일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동제를 준비하는 축출위원은 예년에 나타난 문제점 일소를 위해 단위단체 물품관리를 위한 민중장터 및 주점을 만해광장으로 계한, 관리의 효율성을 통해 올바른 대동제 문화정착을 꾀하며 대동제 특별법 제정, 민주포졸선발 등을 통해 불합투쟁을 통제하게 된다.

한편 경주대동제 91인민자주대동제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영화상영, 문화공연, 경주시민·학생한마당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번 대동제의 세부 일정을 알아보면 △28일(봉기전야) =인민대동제 전야제와 DKIS입석가요제(오후8시 원외관정) 불교문화제(오후8시 소강당II), '부활의 노래' 영화상영(정오, 2~5시 문무관) △29일(봉기의 날) =갈매이와 개막고사(오전11시 교문정중앙), △생생(오후1시 문무관, 오후6시 30분 녹아원), '노태우! 내정출어' 문화공연(오후4시 녹아원), 연동제(오후6시 문무관) △30일(투쟁의 날) =전통문화제(정오 녹아원), 학회노래대항영(오후2시 녹아원), 경주시민·학생한마당(오후5시 상관동일관) △31일(해방의 날) =차진놀이(오후1시 교내사거리), 우리티셔츠 팔기대 경연대회(오후3시 녹아원), 백상연(오후5시 문무관) 등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민학련사건 2명석방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학생연맹(이하 민학련)' 조적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홍중숙(전지공학 88)군과 박정규(국문 87)군이 지난 14·20일 정경1년6개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각각 풀려났다.

교수동정

▲이병주(국어국문·명예교수)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난징 사범대학주최 '당소주제학술토론회' 학술연구발표차 중국계류.

▲허만옥(인문대 미술학) =내일(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본 오사카 미술갤러리에서 열리는 '한·일예술문화회' 초대 허만옥 한국화전'전시관례로 일본계류.

육화경(六和敬)

見和敬)으로 서로 의견이 상치된다 하더라도 평행선을 달리지 않고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이니이다. 육화경(六和敬)으로 각자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불법의 길을 걷는 것을 같이하여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이다. 넷째 신자화경(身慈和敬), 다섯째 구자화경(口慈和敬), 여섯째 의자화경(意慈和敬)인데, 身, 口, 意 3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삼업을 처지

히 뒤야 대자대비의 행을 실천함으로써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이니이다. 육화경(六和敬)의 내용은 비단 정치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웃간에는 물론이요 소집단이나 직장윤리에도 꼭 들어맞는 일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자기의 잘못을 미화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행동도 동료나 이웃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느냐고 보살피려다가 가중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창한 말들을 하지만 우선 자신의 결여된 和敬이 필요하고 크고 작은 집단간에 和敬이 요망되며 이러한 바탕위에 돌출성을 지닌 예교, 예국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육화경이 실천될 때 붉은 불이요, 오월의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아카시아의 향기는 주변에 만연될 것이다.

崔玄覺

사설

미봉책으로 국민을 눈가림하지 말라

지난달 26일 강군지사 사건 이후 한달 여가 흐른 지금도 정국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오히려 '위기국면'이라 제도언론이 표현 할 만큼 급격히 정세가 고요하고 있다. 광주민주화항쟁과 강경대군 정해석이 결된 지난 18일의 국민대회와 불교계의 정권퇴진 결의, 19일의 광주에서의 운구사수 투쟁등 국민적 분노의 파고가 더욱더 높게 일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6공화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합법'의 기원을 쓰고 출발했지만 그 본질은 80년 광주의 피를 교두보삼아 일어난 정치권력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집권기간동안 '공권력'이란 폭력적 수단이 없는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두 해아일 수도 없는 많은 예를 통해서 보고 들어왔다.

지난달 26일 강군지사 당시 극명하게 드러난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무마책으로 6공은 내부정권 정결과 관련된것을 구속시키고 마무리하려 했으나 '국민여론'에 밀려 백관단 교체, 해산위주 전방정책으로 교체등을 국민에게 다짐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국민여론'은 그러나 지금이나 명확히 노정권 퇴진이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이 말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최근 법국민 대회의 관계자 1백50명 정도 거선봉에와와 광주에서의 집단폭행, 시위 때마다 시위장소에서 활개치는 백관단의

만행, 2천년 민족종교인 불교의 최대행사 에 최후탄을 쏟아붓는 것을 보여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려고 하는가. '고양정' 정세는 일련의 현상보다 노정권의 타락한 비도덕성, 비인간적 폭력성에 분노하는 국민들에 의해 생긴 것이다.

이제 또다시 이민주에 총리를 포함한 내각각료를 하고 개정(7)년 국보법으로 시국 사법을 석방한다고 한다. 또한 6공은 "국민여론과 야당에 밀린 것이 아니라 국제제신과 국민불만 해소차원"이라 강변하고 있다. 온 국민의 엄청난 노정권 퇴진의 분열을 '무시'하고 집대결의 미봉책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밀린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우월성'에 우리는 다시한번 노정권이 이제는 우리의 정부가 될수 없음을 온 국민과 더불어 말하고자 한다.

강군의 장해식이후 정국이 수그러들 것 이라는 그들의 예라는 기대에는 아랑곳없이 1천만 불까지 합세한 온 국민의 '노태우정권 퇴진'의 파고는 이에대한 확실한 천명없는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다. 우리의 국민이 이제는 '6.29'에 속고 미봉책에 안주할 예전의 국민이 아니다.

진정 노정권이 그의 말처럼 '국가안보와 국민안정'을 바란다면 길은 하나뿐임을 모를 리 없다. 선택은 자신이 몰라나오나 국민이 몰려가게 하느냐중의 하나다.

학생들의 자주적 진출과 조직화 시급

지난 18일 국민대회 전국적으로 40만 명의 국민이 참가하여 '노정권퇴진'의 한목 소리를 내고 있는 등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정세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각계각층의 조직적 진출이 요구되는 지금 민족통일, 투쟁 선봉대로 자처하는 우리 동야는 오히려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침체되고 비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는등 동야의 여러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점차로 노정권퇴진에서 소비항택적 축제로 옮겨가고, 또한 실천하려는 학생들이 14일, 18일에 학내집회는 5백명만 참가했다가 가두시위때 2천 명으로 불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용성에 기초한 분인토의가 부재한 결과 고양된 학생들의 자주적 진출의지를 효과적으로 지도, 조직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개인의 요구가 증가된 시점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주제의 분인토의는 일부 학생들의 참여를 막는 것이고, 또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일단 거리로 나가자'는 저급수준의 결의만을 내오는 분인토의는 나가고 그만, 안나가고 그만이라는 허무주의를 낳게 되는 것이다. 분

인토의는 다수의 학생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막연하고 저급한 정세분석, 실천방향뿐 아니라 등록금환불, 실천적 축제항택모색, 광역의회에 대한 토론등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심도있는 내용의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분인토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자주적진출에 대한 지도, 조직화의 문제이다. 지난 14일, 18일의 경험과 구속, 부상학생들을 위한 지원대책등 단위별로 산발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자주적 진출의지를 다양화시키기위한 지도와 지속적이고 힘있게 추진시키기위한 조직화가 부재한 상태이다.

우리가 말하는 '대중투쟁'이란 것은 말처럼 쉬울 수가 없다. 학생의 지도부는 더욱 분발하여 분인토의의 내용성을 마련하고 학생들은 분인토의에 기초한 자주적 실천 방향을 찾아내고 다시 이러한 결과물을 지도부가 조직화 해 볼 때 '대중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 때문이다.

바쁘게 서둘러야 한다. 정세를 이끌어 내지는 못할망정 처저서는 결코 안된다. 지금 청년학생들의 역활이 부끄러움을 우리 가 더 절감하고 있지 않은가.



송태영 '신 서유기'

열린글터

본사 여론매체부는 동야의 모든 주제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글, 만화, 사진등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실리는 원고에 대해 소정의稿酬도 지급합니다. 각 단대 모니터 요원(편집부정)을 통하거나 신문사로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

수방사 소요진압 작전에 '위기감' 군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지난 18일자 한겨레 신문을 읽고 나는 무엇인지 모를 위기감을 느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각 부대에 소요진압에 대비한 작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기사를 읽고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수방사는 각 부대 지휘관에게 진압작전에 대비해 통신망과 장비, 무기, 탄약, 개인임무가 등을 점검하고 지시하는 한편, 작·연의 피습에 대비해 방호를 철저히 할 것과 대정부 작전 상황에 대비,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전 군부가 영내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본대 군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소요진압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근현대사를 볼때 정치에 군인이 개입해서 민주화와 안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 예로써 4·19혁명을 짓밟고 탄압한 5·16군사정변과 80년 민주화의 불을 쬐어버린 5·17계엄령, 5·18광주학살 등을 들 수 있다. 광주항쟁때는 쿠데타 군인의 무관한 학살로 엄청난 피해를 낳았음은 우리의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방사가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협박'이요 '공갈'인 것이다.

군의 개입을 생각하고 있는 군부의 지도층은 민중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파악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주의 시대, 승리의 시대인 90년 대에는 우리 민중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군의 중립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반복의식-정권유지 위한 민방위 훈련 평화 위한 노력절실... 전쟁훈련은 멈춰야

매일 15일 오후 2시, '애애' 오늘도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 "국민 여러분 훈련 공습 경보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시고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닌 훈련상황입니다." "아니 이 사람 뭐하는 거야. 지금 전쟁훈련하는데 어딜 돌아다녀 빨리 들어가요." 한쪽에서는 통일 탁구대, 축구 다 하며 통일 이야기를 하면서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일까?

독재정권은 반복 안보논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자신의 정권유지 방패막이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북한 의 군사력은 남한보다 우월하고, 군인들도 많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제국주의의 해해와 같은 은혜속에 미군과 핵무기가

것이더라는, 우리는 여기에 대비한 철저한 반공의식과 훈련을 해야 한다고 정권은 이야기 하며 우리의 기본권을 짓밟아왔고, 민방위 훈련은 늘 무감각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무감각속에서 진행되는 전쟁훈련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폭력적으로 조성하고, 반복의식을 새버리게 자신의 정권유지에 맞게 길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방위 훈련의 본질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떨까요. 남북 군사비 지출을 비교해 보면 남한이 북한에 비해 거의 2배 가량의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군사력 또한 남한이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제국주의의 해해와 같은 은혜속에 미군과 핵무기가

주둔,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침이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파북이 통일 탁구, 축구등을 통하여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지금에 있어 전쟁훈련은 절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이용하는 민방위 훈련은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19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와 노력만이 필요할 뿐이지 전쟁훈련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 우 응 (경상대 무역학과)

초대 사진 '열사의 마지막 가는 길'



5·18대법회...신성한 종교행사에 최후탄 난사 정권의 몰지각과 반윤리성 그대로 드러내

5·18평화항쟁 11주년, 강경대 열사 정례식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 부당국은 연례행사 중의 하나인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의 시가행진을 허가해 주었다. 반정부 시위가 먼저 최후탄과 화염병등으로 시내 곳곳에 일렁져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 의도에서 있었던 대법회는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정을 찾을수 있는 종교적 분위기가 되었다. 법회를 마치고 각 단체들은 만일 온 불교적 상징들을 이복고, 불신자들은 손에 연등을 하나씩 들고 조계사로 향했다. 제등행렬이 마포대교를 지나서 공덕동 로터리를 향할 쯤 강경대 열사의 노제를 이유로 경찰이 제등행렬을 가로 막고 나섰다. 이에 불교신도들은 "사전에 당국으로 부터 허가 받은 것인데 왜 저지하나"며 격렬한 몸싸움으로 계속 밀고 나가려 하자 전경들은 남녀노소가 운집해 있는 제등행렬을 향해 마구 최후탄을 발사했다. 이에 일부 불교신도들은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경들을 밀치고 제등행렬을 강행했다.

더구나, 정권타도 투쟁과도 무관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서의현 스님조차도 최후탄을 머리끝에 맞아 상처를 입기도 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차별 난사를 하는 마땅치 않음은 물론이고 믿을 곳 없는 일방진압과 학생

'봄은 봄이로되 정녕 봄이 아니로다' 6공은 인과응보의 이치 깨달아야

"봄은 봄이로되 정녕 봄이 아니다"라는 옛날 중국시인의 시구가 떠오른다. 나는 여기에 '5월은 5월이로되 정녕 5월이 아니다'라는 구절을 덧붙이고 싶다. 지금 우리가 처한 당대의 상황은 비단 여기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봄다운 봄을 잃어 버렸고 5월다운 5월을 맺지 못한 채 10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금 초여름을 저만치 앞뒤 두고 우리의 젊은 영혼을 하나 둘씩 때려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도대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더 시달려가야만 봄다운 봄을 누릴 수 있고 5월다운 5월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인지 가슴을 내리쳐서 슬픔과 분노에 어찌 할 바를 모를 지경이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因果報)라는 말을 한다. 이것은 사람이 짓는 선악의 인연(因果)에 응하여 과보(果報)가 있다는 뜻으로서 비록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유복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6공 세력인 것이다. 이들은 어떤 강경대군 타살사건을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도 우기고 있다. 마치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용은 식으로 단정을 부리고 있다. 세상에 이런 걸림돌이 어디 또 있을까?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예기치 않게 우연히 일어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을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박정희·이헌재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타살사건을 고문치사와 의문사는 모두 다 우발적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잘 살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려는지 안타깝기만하다.

조 민 수 (경상대 무역학과)

이용호 (사법대 국교과)

이용호 (사법대 국교과)

오는 26일(일요일) 오후 3시 본사에서 모니터(통신원) 요원의 동대신문 평가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평소 동대신문을 애정의 눈길로 보아주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론매체부

목역골

- 이과대학 여러분 / 5월27일은 이과대학생 총회의 날입니다. 총회안건은 이과대 복지, 전대협발족식, 청년학생회, 예비역·복학생 협의회 등입니다. 위의 안건과 우리들의 요구·총회의 등을 분인토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총회를 맞이합니다. -반전반핵이과대 학생회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예비역 형님들 눈물절뚝도 고맙습니다. -전진회계학과 학생회
- 경상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4, 5·9, 5·18에 우리 과국 경상의 선봉투쟁으로 민주정부수립의 그늘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애국경상 선봉투쟁 노태우 정권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고등지는 민족의 맥박 제 23대 경상대학생회
- 노태우 정권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모아 '하나되는 정보관리'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일시:5월24일 오후4시 ·장소:M503 ·안건:①회적통과 ②교수 ③기자채우인신고 ④학생회실분리안 ⑤기타 -남누리 복누리 하나되는 그날까지 하나되는 정보관리 학생회
- 국문과 일일차집 오늘(22일) 김대정(3)학형을 위한 일일차집을 다함판 2층 '보리수'에서 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과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문화의 밤'행사도 같이 마련합니다. 동야 1만 학우의 참여를 하니 우리의 모습을 보여 줍시다. -국문과 학생회

동약! 광장

- 동약의 NBA열전 너도 나도 참가할 수 있는 '제2회 백상 농구대회' 참가신청이 24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과, 동아리, 동문들의 참가로 동약의 농구의 진수를 보여 줍시다. 시합은 27일부터 31일까지 만해광장(야외경기장)과 체육관(실내경기장)에서 실시합니다. -아미추어 농구회장 김영근
- 모집합니다. <한국대학생 자전적 세계일주> ·의·목적:대한민국의 건전한 대학생으로서 내가 태어난 지구촌을 한번 둘러보고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를 살려보자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각 나라의 생활과 풍습을 직접 접해보고 느끼면서 지구는 하나임을 알고자 합니다. ·세계일주기간:92년 1월부터 93년까지 하계훈련:여름방학이후 대한민국 일주 ·대상:건강한 대학생이면 가능 ·일년휴학 가능한 자 ·연령:만 20세에서 25세인자 ·인원:60명정도 ·모집날:91년 6월2일 ·장소:광주 조선대학교 공과대학16층 ·시간:오후3시 ·문의는 062-27-2116번이고 광주시 동구 계림동 7-13 노환골입니다. -광주에서 한 젊은이로 당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마련했습니다. ■서울대성인 체육대회 주최:대성(OB·YB)동문회 일시:5월26일(일) 오전10시 장소:대성고등학교 소문동장 회비:4,000원 예비모임:5월24일(금) 오후5시 만해시비안 ■91년도 성인의 날을 맞은 동약의 학우여러분! 여러분은 이 척박한 아들의 세상에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세대에는 좀더 밝은 희망의 자주·민주·통일된 조국을 물려주
- 기 위하여 우리 열심히 생활합시다. -사법대 한 여학우가 성인이 된 후배들에게 ■오는 24일은 낙원호에서 우리의 총학력평가 사회부차장 김용철선배의 영적금 마련을 위한 하루호프가 있는 날입니다. 많이 참여하여 자리를 더욱 뜻있게 해 주십시오. -선봉에서 투쟁하는 제23대 사법대 학생회 ■우리 지용이의 생일(24일)을 축하합니다. 지용아! 끝내라든가.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지용이 주위 사람들
- 삼가명복을 빕니다. 동국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다 지난8일 불의의 사고로 먼저 가신 학생과 그 김문락선생의 삼가명복을 빕니다. -동국대학교 학생일동 ■동국 L·E·O 보세요 / 이번 25일은 동국·L·E·O가 국제 라이온스협회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아주 기쁜 10회 현장의 밤이 열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세요. 오후5시 무궁화회식당(근하고요 뒷편)에서 진행됩니다. -동국·L·E·O한 선배가 ■공연관람 합시다. 의대 연극회 '소리뿜뿜'공연 '안경위로 올라간 양말'이 오늘(22일 오후5시)과 내일(23일 오후2, 5시)이틀간 원효관 소강당에서 열립니다. 많이 관람하시고 공연준비에 노력한 유정, 현, 정배, 홍심,
- 성아, 승환, 경술서 그리고 승현이 모두모두 정말 수고했다. -형신이가 사랑을 담아
- 알립니다. 올해 2번째로 '생물학과 관계 자료전시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원효관 1층 일반생물학 실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학우들의 관람 바랍니다. ·주의 -노약자가 입산부는 피해주세요. -민고 술따르는 생물학과 학생회 일동
- 노래 한국조 / 동아리 Seven glass에서는 오는 27일 오후2시30분, 5시 2차례에 걸쳐 원효관 소강당 1에서 공연을 갑니다. 흥겨운 노래부터 구슬픈 노래까지 노래를 사랑하시는 학우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래가 즐거운곳에서
-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의 권력유지를 위해 대낮에 젊은이를 때려 죽이고, 민중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짓밟는 정권은 타도되어야 합니다. 태이강의 타살을 막기위해 노태우 퇴진, 민자당 해체, 타도 독재체제 전선을 나설 힘찬 젊은이를 찾습니다. 학생회장 2층 5월투쟁위원회 사무실은 늘 열려 있습니다. -안전한 민중권력 쟁취를 위한 5투위에서 ■축하합니다. 며칠전 몇몇의 음모에 의해 '사람들'의 회장으로 새로이 선출된 유석이에게 축하할 에도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생활하길 바라며 800도가 지존에게 부탁할 말은 '슬픔 자주독자' -89 딸딸들 일동 / ■좋은 영화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대동계간을 맞아 영화모임 '소낙비'에서 좋은 영화 몇편을 상영합니다. 오는 30일 소강당 1에서 '배', '뽕' 두가지로 날아간 새, '7월4일생동 3편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낙비 회장드림
- 동문 확인합니다. 오는25일 오전10시30분 터미널에 안강영과 동문되는 분들은 현금 4천원 들고 예쁘게 차려입고 모이세요. -이빠서 걱정인 동문이

기획연재
대중투쟁과
광역선거

대책회의의 구심으로 범민주연합 건설전망 내세워야

허구적 선거국면 전환, 대중투쟁 근거한 선거투쟁으로 돌파 가능

5·6월 투쟁과 광역의회선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 지난 18일 이후 대책회의가 '국민운동본부'로 개편되며 ○
○... 명동성당에서 장기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5일 국 ○
○... 민대회를 남겨두고 이후 정세는 매우 유동성·역동성을 ○
○... 띄고 있다. 이시기에 현 정권은 국민전환의 계기로 활약가 ○
○... 드를 내입에 따라 이후 투쟁전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
○... 다. ○
○... 이 글에서는 대중투쟁을 계속 일구어가되 선거투쟁을 병 ○
○... 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정세분석과 선거투쟁에 대하여 ○
○... 2차례에 걸쳐 실고자 한다. ○

'대책회의'질 높은 투쟁 예고

이제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노정권은 공권력을 방자한 국가 권력에 의한 테러를 규탄하는 전국적인 대중투쟁의 예봉을 광역의회 선거국면으로 전환시켜 피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으며 '고 강경대 열사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 (이하 범국민대회)의(이하 범국민대회)의 지도부를 18일 밤부터 명동성당으로 이동시켜 근거지 투쟁을 중심으로 현재의 투쟁을 노정권 퇴진투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5월의 기간은 광역의회 선거로 국민전환을 꾀하는 노정권과 전국적 대중투쟁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투쟁을 새로운 질로 변화시키려는 범민주연합 사이의 절박한 대치점이 형성되면서 진행될 것이다. 양진영의 긴장된 대립은 전면전 가까워 투쟁으로 외화될 것이다.

이제 노정권은 고 김기실 열사의 죽음을 애국시커 하고 있으며 아울러 범국민대회의 지도역량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범국민대회회의는 명동성당 농성을 중심으로 모든 조직 역량을 동원하여 5월투쟁을 노정권 퇴진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력과 민주주의 동 양진영이 맞부딪치는 5월투쟁의 전과는 곧 6월정세의 본질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6월항쟁보다 확대된 조직역량 수준

언론에서도 그랬듯이 91년 5월투쟁은 87년 6월항쟁과 자주 비교된다. 91년 5월투쟁의 전개양상은 87년 6월항쟁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91년 5월투쟁은 87년 6월항쟁과 명백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명백한 차이가 91년 5월투쟁의 성

격을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대중조직의 발전된 힘에 의해 5월투쟁이 이끌어져 왔다는 것이다. 6월항쟁 당시의 미조직 가두대중이 5월투쟁에서는 조직 대중으로 가두에 등장하여 투쟁을 이끌어온 것이다. 전교조, 전농, 전노협을 중심으로 지역 연대의 힘이 마련되고 그것에 의해 투쟁이 이끌어져 온 것은 대중조직 역량의 발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둘째, 5월투쟁은 강경대 열사의 사망 이후 거의 민주민주운동의 조직역량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6월항쟁이 당시 통일민주주의 전진적 결합에 의한 정치적 상징성으로 투쟁의 흐름을 이끌었다면 5월투쟁은 순수한 민주민주운동의 조직적 힘으로 이끌어왔다. 셋째, 정치적 일정의 긴박성이 87년 당시와는 다르다. 단지 광역의회선거가 예정되어 있을 뿐인 5월투쟁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요구하는 대중의 정치와 정치적 일정의 긴박성 정도는 크게 달랐다.

이러한 차이점은 5월투쟁의 주체적 조건이 6월항쟁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민주운동의 정치적 주도력이 상당정도 강화된 반면, 제도야당의 그것은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크게 약화되었다. 또 민주민주운동의 주도력 안에 기본계급 대중의 역량의 강화에 의한 대중의 조직화도 한층 강화되었다.

6월항쟁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점은 현재의 투쟁동력이 6월항쟁의 투쟁동력과 비교할 때 정치적 진로의 전방에서는 좀 더 명확할 것이다. '내태우투쟁'에서 좀더 완강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6월항쟁과 비교할 때 또 한편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투쟁동력이나 주체적 조건의 차이가 곧 노정권을 단시일 내에 퇴진시킬 수 있는 민주민주운동의 발전 근거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을 볼 때 민주노동조합의 규모는 전노협 13만, 대기업연대의 10만, 업종별 협의회 18만으로 총 40만명 정도가 포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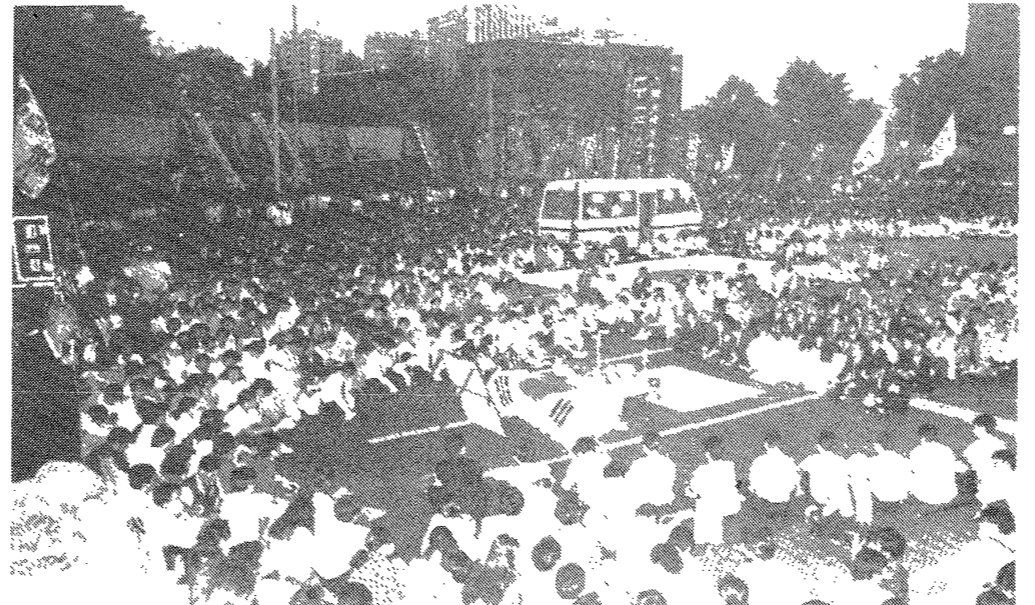
어있다. 이 규모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200만 노동자의 20%이며 전 노동자의 4%에 해당한다. 또 민주노동조합의 내부 심상을 보면, 단위 노조들은 지도본부의 부족 및 '해심대오'의 취약으로 정권의 노조탄압에 대항하는 조직 보위력이 상당히 취약함을 보여준다. 또 전노협, 대기업 연대회의, 업종별 협의회 등의 '연대'는 그 통일성 및 지도력 확보의 측면에서 볼 때

조직화는 발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대협이 지도하는 청년학생회의는 계급·계층별 대중조직의 소속 계급·계층의 대중들에 대한 지도 주도력이 상당히 취약하다. 조직대중들이 현재 진행되는 '살인폭력 정권 규탄투쟁' '내태우 정권 퇴진 투쟁'에 참여하는 실상을 보면, 부문별 구분은 별의미를 갖지 못하고 지역별 구분만이 가능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5월투쟁에 있어서 전진된 기행 지

체의 대중정치투쟁이 범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한다면, 당연히 승리는 국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현 노정권 규탄, 퇴진투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일반국민들의 정황을 면밀히 타산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5월투쟁 속에서 민주민주운동이 이뤄내야 할 성과는 무엇인가.

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범국민대회회의의 지도부는 5월투쟁을 이끄는 민주민주운동의 구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예정된 25일 국민대회 이후 폭발적 상황이 없는 한 일단 5월투쟁은 정리가 된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투쟁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과제는 5월투쟁속에서 만들어진 투쟁의 구실을 어떻게 민주민주운동의 조직적, 정치적 구심으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민주대연합의 내용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민주대연합의 범주에 보수 야당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논의가 투쟁을 앞당겨 오호러 투쟁의 고양을 가로막게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범국민대회회의의 발전 전망이 단순한 국민연합의 명칭 변화로 될 수 없다면 이문제는 단순하지 만

않다. 현재 야당세력과 민주민주운동 진영은 경제적 제휴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문제가 어려운 것은 공극적인 민주정부의 수립이 야당을 정치적 대안으로 생각하는 대중과 민주민주운동을 정치적 대안으로 생각하는 대중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결합은 사안별 제휴투쟁을 중심으로 상연연합투쟁을 요구 하게 된다. 범국민대회회의가 확보해 놓은 투쟁의 구심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투쟁을 위력적으로 이끌어 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야당을 투쟁의 전선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즉, 사안별 제휴투쟁의 수준을 최대한 하면서 그 투쟁의 성과로서 야당을 반민자당, 범민주연합의 틀에 묶어 놓아야 한다. 그것은 야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쟁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노정권이 야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제조적의 한계를 대중적으로 폭로해내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를 조직적 성과로 전화시킬 수 있는 범국민대회회의의 조직적 발전이다.



○지난 18일 강경대군 정례식에는 전국적으로 40만이 넘는 반독재투쟁이 이뤄졌다.

대중조직성장 불구 독자적 투쟁의 승리 어려워 민족민주세력 주도로 대책회의의 조직적 발전 필요

일부 지역에서 주도적인 투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세를 주도하면서 전체적인 투쟁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계급 계층의 대중역량이 발전했고, 이에 기초하여 민주민주운동의 정치적 권위도 높아졌지만, 또 현재의 투쟁을 통해서 기본계급의 대중역량 및 민주민주운동의 힘도 강화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기본계급 대중이 압도적 우위속에서 현 투쟁을 주도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민주민주운동이 독자적 지도를 통해 현재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어렵다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대중들의 역조직과 전교조의 지부 지회는 대단한 힘을 갖게 된다. 조직대중의 규모 및 조직들의 내적 치밀성 수준을 볼 때, 조직대중들이 현 투쟁에 체계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있다는 실상을 볼 때, 현재의 투쟁력으로 노정권을 굴복시킬 만한 타격을 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시일 내에 급격히 폭발하고 있는 대중투쟁을 통해 노정권에 굴욕적인 양보를 강요하느냐, 또는 노정권을 퇴진시키고나서 여부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직접적인 동참을 광범하게 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향후 동향이 달려있다. 일

민주세력의 정치·조직적 구심 요구돼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살인정권 규탄, 퇴진투쟁으로 나가는 대중투쟁의 상승적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의 구심이 되고 있는 '고강경대 열사 살인폭력 규탄과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편, 발전시키는 것은 민주민주운동의 필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범국민대회회의는 이미 '공안통치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칭)로의 변화

운동내부의 정치적 구심이 이룩되지 못하면 범민주연합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게 된다. 따라서 야당을 포함하는 범민주연합의 경로에서 민주민주운동의 내부적 구심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번 5월투쟁을 통하여 그 전망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야당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논의는 지극히 소모적으로 전개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이과제는 얼마남지 않은 5월투쟁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안별 민주연합체인 '범국민대회회의'를 조직적 민주대연합인 '범국민운동본부'로 개편한다는 발전방향의 틀만 잡았을 뿐이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투쟁 목표, 활동방향, 조직체계 등에 대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민주대연합의 내용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민주대연합의 범주에 보수 야당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논의가 투쟁을 앞당겨 오호러 투쟁의 고양을 가로막게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범국민대회회의의 발전 전망이 단순한 국민연합의 명칭 변화로 될 수 없다면 이문제는 단순하지 만

않다. 현재 야당세력과 민주민주운동 진영은 경제적 제휴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문제가 어려운 것은 공극적인 민주정부의 수립이 야당을 정치적 대안으로 생각하는 대중과 민주민주운동을 정치적 대안으로 생각하는 대중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결합은 사안별 제휴투쟁을 중심으로 상연연합투쟁을 요구 하게 된다. 범국민대회회의가 확보해 놓은 투쟁의 구심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투쟁을 위력적으로 이끌어 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야당을 투쟁의 전선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즉, 사안별 제휴투쟁의 수준을 최대한 하면서 그 투쟁의 성과로서 야당을 반민자당, 범민주연합의 틀에 묶어 놓아야 한다. 그것은 야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쟁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노정권이 야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제조적의 한계를 대중적으로 폭로해내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를 조직적 성과로 전화시킬 수 있는 범국민대회회의의 조직적 발전이다.

회련, 중앙 차원의 범국민대회회의에는 현재 제도야당들을 포함하여 55개 단체 및 상층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거의 모든 민주단체들과 민주인사들이 결합된 '대책회'가 다양한 형태,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참여조직, 인사들의 조직적 결합력이 취약하며, 중앙차원과 지역차원의 연계력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취약한 조직체계를 응집력이 좀더 강한 조직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원안인 것이다. 조직체계 재편과 관련하여 민주민주운동에서는 재편 논의가 소모적으로 전개되면서 재편도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재편되어 구축되는 조직이 대중적 투쟁력과 위력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과정을 활성화하면서 시급한 전국적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나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시급한 과제이다.

위력적 대중투쟁속에서 광역선거 준비를 위한 전략적 대중투쟁이 5월말까지 이어지고 그 성과로 운동의 구심이 확보되며 이를 토대로 야당투쟁의 전선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 민주대연합은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정권이 광역의회 선거로 정세를 전환시켜도 광역의회 선거는 대중투쟁을 근거로한 연합공천의 내용까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형민
(전진민 조직국)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묻던 그순간이
또 하나의 기술의 벽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낸다는 것과 같다. 그 안에는 나의 지식, 사고하는 방법, 성격 그리고 희망같은 것들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안에는 내일을 향한 나의 의지도 들어있기 마련이다. 일본이 고해상도의 슈퍼 VTR을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후 그들은 그 기술을 극비에 포함시키고 외부에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았다. 21세기를 향한 이 새기술의 마지막 VIR이라고도 불리는 그 첨단기술을 끝내 자기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기술이 절대 성역일 수 없었다. 끊임없이 도전해 왔으나 간직할만한 성공이라고 여겨질 큰 성공이 나에게 없었다. 아마도 대학시절 때부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두가 놀랄만한 또 하나의 새로운 나,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내놓고 싶다는 꿈을 실현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수퍼VTR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수평해상도를 400선 이상으로 높히는 것, 전혀 다른 성격의 회로부분과 기계부분을 결합시키는 것 등 숏한 난제들을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랬기에 연구과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의 기준도 엄격한 기술수준의 기준도 일본이나 그 누구가 제시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었다. 어쩌면 이미 기술시세의 대상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그 누구도 기술을 주지않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와중이었기에 우리의 의지를 팔까지 믿어준 회사의 과감한 지원은 기술의 벽을 넘는 하나의 도약대가 되어주었다. 결국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한 순간이 또 하나의 기술의 벽을 넘는 순간이었고 당연한 또 하나의 나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이었다. 지금은 다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나를 꿈꾸고 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세계최초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나를 —

선임 연구원 강구호

인재와 첨단기술의

일본 기술의 장벽을 넘어 슈퍼 VTR을 독자 개발한 슈퍼 VTR 개발팀

고려대 상공우주항공과, 서울대 공대전기공과, 강원대 전기공과, 한양대 전기공과, 한양대 전기공과

범민주연합 건설의 전초마련 성과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대회' 기자회견

지난 18일투쟁이후 명동성당으로 근거지를 옮긴 '대체회의'의 이후 투쟁·조직체계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에서는 지난 20일 '대체회의'와의 기자회견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통치종식·정권교체이후의 대안으로 민주정부수립의 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각계급·계층이 자기투쟁으로 펼쳐 나설때만이 가능하므로 대체회의는 이를 보장해주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80년대 민주화의 성지로 인식된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또 서울의 중심지라는 근거지 투쟁의 의미도 내포되었습니다.



이수호 '대체회의'집행위원장과 김홍식 전대협장기 기자회견 모습.

▲기간의 활동에 대해 간략한 평가를 한다.

=범국민대체회의가 아직도 내부적으로 사상적 통일을 이루고 높은 집행력을 담고있지는 못합니다. 현재 약 55개의 민주단체가 가입돼있지만 실질적으로 20여개의 단체가 주축이 돼있으며 그나마 연합체적 집행력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남한사회내 야당까지 포함한 반노태우·반민정당을 내건 모든 민주단체가 총집결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성과입니다.

이제 범민주연합건설의 구체적 당면의 조직적과제로 남는데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투쟁보다 여러단체간의 협력이 가능하고 공동집행 할 수 있는 낮은 차원에서부터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투쟁의 성격과 현명동성당농성의 의미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물가·집값폭등 등의 민생파탄과 수사·폐물사건에서 극대화된 국민대중들의 분노가 강경대열사의 죽음으로 행동화된 것입니다. 이같은 분노는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화하는 물론이외에 각 부문·영역에서 걸 높은 정치투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단계 높은 조직체계정립과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투쟁은 장기적안목으로 절충은 투쟁과 조직적 준비를 해야하고 이를위해 적들의 기간 대응에 대한 분석의 폭로·공안

▲대체회의의 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 광주시민에 대한 폭력적 만행등 저들의 본질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공지에 몰린 현 정권의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공안통치라는 본질이 표출되는 행동양식은 폭력적 수단의 예는 없습니다.

지금 김기철형사의 분신배후조종, 유서조작등 보복사찰의 상식

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음모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군사파쇼의 본질적 속성이며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각사파나 국무총리의 경질에 아닌 현정권의 퇴진밖에 없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현재 제도안본등에서 왜곡·비방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부도덕한 정권일수록 집권유지 위한 언론·교육·군사등을 장악하려 합니다.

특히 지난해 언론관계법개악·민영방송 설립이후 지금의 보도양태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

다. 더구나 김기철형사 유서조작등이 대표적이며 결국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써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언

동의 탄압을 분쇄하고 이들의 요구와 이해를 집중·집약시키는 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광역선거의 일방이 발표됐는데 이번선거에 대한 입장.

=현재 선거자체의 전면거부와 참여라는 두가지 입장이 나뉘어 있는데 민주적투쟁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선거는 실시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데 문제는 어떻게 참여하느냐고 믿어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참여가 아닌 명확한 선거투쟁의 관점에서 이번 합법공천을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구도로 만들고 범민주 연합건설의 기초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으로는 미리 투쟁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은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요 장기적 항전을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적 결속의 방안으로 지역·부문을 포괄하는 대표자모임을 상설화하려는 노력에 전행중입니다.

또한 각지역으로 분산돼있는 연합체적인 모임을 집중시켜 통일투쟁을 전개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학생에게 주고픈 당부의 말씀.

=역사속에서 청년학생의 선봉자적 투쟁의 성과는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중한 현실속에서 전배열사의 투쟁정신과 민중과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열심히 싸워주시시오.

분위기의 고양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것"이라 거듭 다짐했다.

또한 현재 동양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동상황을 '임시민주정부수립과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양대구호가 난립하여 청년학생들의 신봉봉일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단결의 구심이 퇴화한 '총학생회가 정치적 지도력을 못찾고 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앞으로는 다양한 분임투쟁을 통하여 학우 스스로 결의를 다져내고 이를 기초로 동양내 압도적 자주의 힘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 제시했다.

끝으로 이후 정세의 고양에 따라 청년학생들의 대응방향을 "강군살인만행후 백골단해체와 공안내과 개편을 수용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노정권의 본질은 달라진것이 없이 광주에서 한시민을 또 경찰의 폭력으로 쓰러지게 하고있어 우리 청년학도는 단일한 구호로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명동성당전거투쟁과 대시민선전전을 벌여 내어 지속적인 조직적 대응을 이뤄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김계희 기자)

정부의 사실왜곡 무엇을 겨냥했나

강경대군 치사사건이후에 계속된 분신에 대해 모일간지에서는 '분신은 6공들이 침체와 하강곡선을 긋고있는 운동권의 위기의식 반영'이라는 분석기사를 통해 분신뒤에 배후세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확실치 못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쨌든 증거도 없는 말을 기사에 쓴 것이었을까. 이것은 과연 단순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뻔이뻔한 말인 것인가, 아니면 또

계속된 민생파탄과 공안통치에 대한 전국민적 항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측은 사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미묘한 논리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에만 급급했다. 분신에 대한 통치권자로서의 어떠한 해결방안제시나 유감의 표시없이 '분신배후세력' 운운하며 검거선봉에 또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 분신하는 사람

거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검찰이 의뢰한 증거필적에 대해 "유서와 필적이 틀린 점이 대단히 많으나 한두가지 유사한 점이 있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필적감정결과 동일한 필적으로 단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필적이 다르다고 봐야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중인 것이다.

대중결집낚치분위키 저하우도

유서조작수사는 '반인륜적' 현정권의 발상

다른 의도가 숨겨진 것일까. 우리가 일련의 분신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든 의미에도 또다른 분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강군살인후 최초로 분신을 시도한 전남대 박승희(석목영양)양의 경우에는 '강경대군의 죽음의 의미를 잊지않고 투쟁하기 위해서'라는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여기서 그칠 줄 알았던 분신은 안동대 김영근군, 강원대 천세훈군으로 이어졌고, 강원대의 "분신뒤에 배후조종하는 세력있다"라는 증거(?)로 제시되는 전남대 사회부장 김기철씨의 죽음에 이어서도 4명의 죽음이 이어졌다. 모두가 '단순한 자살'이 아닌 '노정권퇴진'이나 '군부독재퇴진'이라는 주장을 하며 숨겨진다는 것이다. 어느 학자는 개인적 자살도 원인과 책임은 사회에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인간의 의식형성과 행동결정에는 사회적환경이 결정적역할을 하기때문일 것이다.

강경대군의 죽음이 민중투쟁이후 치달았던 공안통치의 형태가 낡은 과잉진압이 원인이지만, 이후 나타난 분신역시 사태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분신은

그렇다면,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한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연일 크게 보도하면서 검찰의 주장과 증거를 양부쳐버릴 때고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강군살인후 급격히 결함을 해가는 학생, 재야, 노동계의 세력과 '대체회의'간부에 대한 구속수사방향을 통해 사기를 저하시키고, 분신 '배후세력'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배후세력이 없음을 지라도 언론을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대체회의와 국민들간의 괴리를 조장하여 당분간 투쟁의 열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강군살인후 노태우정권이 청와대에서 갖은 언론계의 유서조작과 오진회지리를 마련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증거가 확보되지도 않은 '분신뒤 배후세력' 여부나 확실치 않은 근거없는 유서조작과 수사사료 사건을 왜곡·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사태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62의 6월항쟁'보다 더 큰 국민들의 저항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 전남대 사회부장 김기철씨의 유서와 김씨의 필적에서 확보한 필적이 다르다며 수사중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김씨유서 필적과 85년 김씨가 누이에게 책자를 선물하면서 쓴 필적, 89년 호계동사무소에 제출한 주민등록증 분신신고서에 적힌 필적을 제시하고, 김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과 전남대 총무부장 강기훈(27)씨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전남대에서는 김씨가 지난 86년부터 88년까지 군대내에서 서부경리군부를 보던 필적의 변화가 생겼으며 최근의 김씨수필을 증

(양승희 기자)

"이 싸움은 우리가 이미 이겼습니다"

지난 14일 명동성당서 단식농성한 이성훈군

인터뷰

고 강경대열사의 장례식이 지난 14일 시정된 노제를 경침의 원천봉쇄도 부산되는 등 노정권의 무력진압이 여실히 증명되는 가운데 분교 유원실(희재)4, 이성훈(경의2)군등 분교6명이 명동성당에서 물과 소금만으로 구국의 횃불을 밝혔는데, 이번 단식농성에 참가한 이성훈군을 만나 현시국의 흐름속에서 선봉에 선 청년학생의 역할과 임무 등을 들어보았다.

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온 것과 때를 같이해 구국농성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연대에서 명동성당으로 옮겨진 민중의 성지라는 상징성과 함께 대체회의의 명칭을 바꾸며 이것을 중심으로 한 근거지 투쟁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후 참가하면서 자신의 절의를 "이러한 폭력적인 탄압에 대해 우리의 강도높은 결의를 보여줘 단숨에 노정권 타도의 구호가 아니라 내용성과 방향성을 마련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라 굳게 다짐했다.

학우들의 소식을 접했을때 매우 놀랐어요. 이것은 육체적 생명을 죽음을 향기하여 미-노정권과의 피적전선을 한층 고양시킬 것이고 이후 우리는 '민자당의 학생을 심판'하는 절사정전에 투쟁으로 화답하여 청년학생의 선봉투쟁을 해야 할것"이라 주장했다.

지난 14일 고 강경대열사의 운구

통역로

"살인자 노태우를 쇠괴이프로 처치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에 백주대낮에 어린 학생을 때려죽인 정부가 '미안하다'라는 형식적 사과만으로 모든일이 해결된 것처럼 태연해하고 죽은 것만으로도 부모마음은 원통한데 노제도 못지내게 하니 그학생 부모마음은 오죽 답답하겠나"

5월하루



주검들이 묻혀있는 땅을 돌리지 안장했다. 사망후 20여일만에 실골을 찾은 강경대열사의 시체를 14일 3일 치러주었다. 그러나, 운구가 지나가려는 차도를 정소차까지 동원해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운구행렬을 강제해산시켰고, 지난 18일 다시 노제를 강행, 공명로 토터리에서 노제를 치러뒤 어떻게 광주로 향했다.

과학 아이디어가 생활 아이디어로 - 신화테크

1년간 지속되는 영어연수?

"같은 비용으로 해외연수와 1년간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동시에"

해외어학연수는 더욱더 큰 영어공부예의 의욕을 돋구어 준다. 그러나 그 열기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취 추억으로만 남기 쉬운 30일간의 연수 - 추억이 아닌 자기만의 재산으로 만드십시오. 엘림이 30일간의 열기를 365일 연장해 드립니다.

미국대학영어연수

■ 학교 명

- Evergreen State College
- Florida International Univ.
- California State Univ.
- Long Island Univ.

■ 명승지 문화여행

- 로스앤젤레스 · 샌프란시스코 · 워싱턴 D.C
- 라스베가스(그랜드캐년) · 시애틀
- 시카고 · 탕쿠버 · 하와이 · 뉴욕
- 버블로(나이아가라 폭포)

(주말및 연수후 1주일의 관광은 option 일일입니다.)

신청기간: 1991년 5월 31일까지
각 대학별로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므로 마감일전에도 선착순 접수 마감될수 있음
신청방법: 본원 소정양식의 참가 신청서

살아있는 영어 현장 UNI-ELIM CLUB

(주)엘림교육연구개발원의 해외연수에 참가하시면 1개월의 영어연수에 다음 실용영어 학습교과서 10권, UNI-ELIM CLUB의 회원카드, 각종 영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UNI-ELIM CLUB 이란 연수후 1년간 정규교육프로그램과 영어습득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Activity(외국인과의 meeting, 세미나, party, game, 등산등 레크리에이션...)를 통해 문법, 독해, 어휘, 정서 및 회화등 영어에 관한 모든것을 즐겁고 자유롭게 마스터할수 있는 독특한 회원제입니다.

회원들은 본원의 격주반영 회원지(학습자료, 각종정보, 교양등의 내용)를 무료구독하게 되며, 휴학, 취직, 이민비자, 정보제공및 상담, LOUNGE, LAB 실 사용 이용, Shuttle bus 운행등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엘림교육연구개발원

서울·서초구 반포동 737-18(로얄 B/D 4호)

상담·문의 549-3411~3

점음의 통화법 - 셸피아

젊음은 통화에서 마저 자유롭게 싶다!

540-1521-11

마지막 두자리수가 주는 통화의 자유 - 셸피아

젊은이에게 대화란 마치 산소와 같은 것 - 자유로운 밤의 대화를 위해 내 방의 전화기만으론 이제 만족할 수 없다! 나만의 전화번호를 갖자!

셸피아 - 셸피아는 기존의 전화번호에 두자리수의 추가 코드번호를 부여하므로 나의 전화는 셸피아를 부착한 내 방의 전화기에만 벨을 울려줍니다. 셸피아 - 바로 통화의 자유입니다.

●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원하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기다립니다. 연락처: 364-6570

● 보급 특가 판매 실시
점음의 축제를 맞아 특별 판매를 실시합니다. (구입시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하세요) 구입처: 본사(540-1521-3), 547-2031~2 이대일 저노더(012-5200)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군이 있는 곳엔 범죄만 활개

한미행정협정 불평등으로 피해보상대책은 속수무책

미군범죄의 박물관 '문산읍 벨렘기지'

미국의 식민지적 치외법권을 합법화하는 불평등조약의 상징인 한미행정협정은 점차 파기되어져야 하며 광범위하게 암세포처럼 자리 잡고 자행되고 있는 미군범죄는 한국국내법에 의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이치인것을 이 나라 민족이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미군이 폭력을 정당화한다는데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민주정부(?)라고 자처하는 정권이 애초부터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생각하에 이에 사법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이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서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미군의 범죄는 소멸되지 않을것이 자명한 일이다.

미군범죄를 겪어오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대치를 이루던중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 최파이프를 근처 공사장에서 주워 부대안으로 도망가면서 대령유리 4장을 마구 깨부수고 부대정문은 통곡한뒤 발탄을 하더니 현지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숨이다.

사고발생직후 주민30여명은 단절된 행위로 부대안 정문에서 연좌하며 범인색출요구와 '양키고흥'의 구호를 외치며 이 때까지 보여주지 못한 행동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당황한 부대책임자는 다음날 용의자를 대질·확인시켜 준다며 약속하고 주민들을 돌려보냈다. 다음날 마을 이장과 인근 관할 경찰서장이 부대안으로 들어가 범인용의자 색출을 위해 대질·확인을 요구하자 오히려 생색을 내며 발탄을 하더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반발하자 피

없이 보아왔던 이번일처럼 억울한것도 없어요"라고 하면서 생활속에서 복판에 오르는 미군부대의 범죄실상과 부대철수를 대학생들처럼 외치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혹인놈이 걸만 걸은지 알았는데 속까



◇경기도 문산읍 선유4리 캠프 벨렘 미군기지

미군의 완전한 철수만이 근본적 문제해결

해자 가족을 방문하여 'I am sorry'라는 사과 및 마디와 15만원이라는 피해보상금을 주면서도 전혀 잘못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만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가족인 이씨의 어머니 이정자(59세)씨는 "서로 안그랬다고 잡어대니 솔직히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단지 분하고 억울해서 죽겠어요. 그날 아들이 그렇게 당해서 죽지않았을 망정이지 이젠부대 미군들이 행패부려온 것을 30년동안 이곳생활을 통해 수

지 새가됐다"면서 빨리 부대가 철수했으면 하고 원했다.

술을 몽땅 처먹고 피성을 질러대지 않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하고 택시운전사를 협박해 요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달아나는 일은 예사로운 일이라며 이지역 주민은 범죄의 종류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6·25한국전쟁이 발발한후부터 이 지역이 주둔했다는 이부대에서도 미군범죄가 소멸되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범죄의

체현한것으로 거짓 성의를 가지고 제단을 해서 옷을 완성시켜 놓으면 찾아가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폭행사건을 통해서 세상스럽게 느낀 것은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뉘그러함 부대안으로 들어간뒤 인근 주민상인들의 생활권을 이용하기도 하듯 부대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명령·조치까지 하며 더욱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라서 주민들은 앞에 다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양보를 하기 때문에 미군들이 더욱 발성을 부리는 것이 예상치못한 벌어진 선유4리를 비롯한 미군부대 기지촌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이며서도 구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들어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이나 미군범죄 처리의 근거조약에 한미행정협정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상대로는 유명무실격이 아닌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어 형식상의 문서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인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기인이라도 하듯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한국정부의 법적절차에 따라 처벌되어져야 할 것이 마땅하나 이런 원칙과 상식을 뛰어넘어 미군범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정부의 수사와 제판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있다. 미군부대 기지촌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줄다는 의정서·서초동법원의 민원사무실이라는 곳에서도 미군범죄의 실태는 파악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을 미루거나 이에 처리할 생각조차 하고있지 않아 자연히 피해당한 기지촌 주민들만 서러울뿐이다. 현 정부는 '치외법권지역이라 어떻게 할수없는것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해결을 나아가 주민들이 인정 바라는 것, 즉 피의자의 처벌한 사법처리와 피해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땅을 내주면서까지 완전히 주권장악의 입장이 된채 주한미군의 범법행위는 한국내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작태를 고려해본다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 없는것이기에 보다 본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검토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할 시급한 시점이다.

미군범죄와 주한미군철수의 관계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때 해결의 방안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국제사회에서 미군주둔의 합법성이 아무리 힘에 의해 인정될지라도 어떻게든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한 이 나라의 기지촌현실은 범죄의 먹물로 얼룩진 꼴에 지나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통한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을 간파해내고 과연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서 바로 알아 나갈때 진정한 나라라는 식민지조국에서 해방되는 날이 찾아오는 것이다.

(조인환 기자)



미군범죄 조장하는

'한미행정협정'

미군이 이땅에 진주한지 40여년 동안 그들에 의해 자행된 한국인들에 대한 살인·강간·폭행등의 만행은 이루 말할수 없다. 한미관계 모두가 불평등과 약속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을 들수있다. 이는 정치·경제·군사·문화등 한미간의 총체적인 역관계의 불평등성을 법률로서 형식화시켜낸 것에 다름아니다.

특히 한미행정협정에 행사재판권 문제를 그동안 미군범죄의 사법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행법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인 행사재판권을 실질적으로 갖지 못하고 미국의 일방적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 22조 1항에 근거 '주한미군 및 그가족에 대해 미합중국자국민 형이 허용한 재판권을 보유하며 대한민국 역시 대한민국이 허용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동등한 관계를 가진것처럼 보여지나 여러 예외조항등에 의해 재판관행사의 제약이 여전하다.

이처럼 미국의 예외해탈때 불평등은 의외로 심각하다. 더구나 행사재판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범죄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미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에 인도하여야 한다"는 22조5항의 규정으로 실질적 수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기지안으로 도망치면 들어가 체포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군범죄에 실행을 선고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구금시설에서 형을 집행할 수조차 없다.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범죄자에 대해 합중국당국이 구금인도를 요청하면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하며 범죄자의 석방이 대한민국 당국의 승인을 받음까지 구금한다'는 조항으로 권한한 기지내에 구금하는 예가 있으며, 이후 미국은 대한민국의 승인아래 석방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와같은 재판권의 포기에는 실질적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른다. 재판권이 미국측에 있기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사보다 그들의 수사내용이 실력을 갖고 피해자인 또한 그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의 불평등성은 단지 법률상의 하자라 볼것이 아닌 진정한 한미관계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2월 재판권에 관한 몇가지 조항에 대해 부분적 개정이 이뤄졌지만 결코 한 국가의 자주성과 평등성은 몇몇 법문의 개정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한 노력속에서 진정한 개정을만이 아니라 법률 자체의 존엄성까지 주한미군이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와 같이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일본·필리핀의 경우는 미군이나 그 가족이 범죄의 피해자로 되었을때만 미군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기타의 경우 모두 접수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미국의 예외해탈때 불평등은 의외로 심각하다. 더구나 행사재판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범죄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미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에 인도하여야 한다"는 22조5항의 규정으로 실질적 수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기지안으로 도망치면 들어가 체포할 수 없다.

(사회부)

민방위훈련폐지등 군축 첫걸음 시작

반북이데올로기가 위태롭다

올해 말 UN총회에서의 가입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노력이 물밑에서 커다란 흐름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 통일투쟁을 이끌어 왔던 학생운동은 오는 7월 남북청년학생축전개회를 표방하며 학생들의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뤄낼 것이라 한다.

이렇듯 통일과 관련한 주변정세들이 그 어느때보다 고양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5일 민방위훈련시간을 갖는 그동안 급기시되어 왔던 불가침선언체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의 학생들이 거리를 내달렸다.

1967년 박정희정권시절 안보논리를 앞세우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민방위훈련이 20여년만에 그 의미가 학생들에 의해 거부당한 것이다.

취약한 통치 기반을 지속시키기 위한 역대정권의 산물, 즉 냉전의 살벌한 이데올로기와 조장된 위기상황들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하나씩 걸림이 벗겨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20선언으로 북한을 적이 아닌 민족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정권이 아직까지도 극한 전쟁상황의 설치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민방위

훈련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통일노력의 노력이 말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반증일 뿐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달에 한번씩 '북'에 있는 침략세력의 위협을 일깨워주는 민방위훈련에 대한 거부들이 최근 일고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이제 예비군훈련에 대한 개선의 요구들이 각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대의 경우 지난해 중순 약 8백여명의 예비역학생들에 의해 '이전의 예비군훈련이 정부의 반북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선전하거나

그 진행에 있어서도 비 민주적이'라며 이 훈련을 자치교육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사실 지금까지의 예비군훈련이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군사적 훈련의 성격이 띠었다는 보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공이념의 선전, 반북의식의 전파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경험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외에도 최근에 일어나는 전쟁의 양상선언과 관련, 군인대자를 전경으로 차출, 대시위전입장전에 부부케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이의 철폐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강경대열사건이후 전경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투경찰체,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등을 대대적으로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전경제도가 여타의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의 반공·반북이데올로기 유포를 저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국민대중들의 반북이념을 평화군축의 운동으로 인입시키는 일환으로 군복무 단축투쟁을 들수 있다.

지난해 전대원에서 제안한 '현행 24개월의 복무를 1년6개월로 단축하면 한반도내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비록 아직까지 내용적인 준비는 미흡하지만 군인대를 앞둔 학생들의 호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병역자원이 충분수요보다 많아 연간 5만여명이 군에 입대해 무용하다는 현실에서 큰 실용성을 가지며, 이후 남북대결정세로 남북상호간 평화·군축운동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이전의 반북이념의 선전으로 이용되어오던 각종 제도를 대한 개선요구투쟁들이 점차 늘어나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전개될 조국통일운동, 평화·군축운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기용 기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신재총부강혜조
도무무주국국지사조실
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이법운법대녹관
병상산등진원응
춘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경북 금릉군 대항면 운수동 216번지
(0547)306174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김천지지사

마·음·로·워·는·불·전

민중사에서 주목같은 부처님의 옥성이 드디어 책으로 나왔습니다!

초기불전 시리즈
불전을 눈이나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습니다.

1. 불타의 과거세 이야기
2.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3. 비구의 삶 비구니의 삶
4. 불타의 마지막 여로

딱딱하게 생각되는 불전을 소심처럼 읽어 갑니다. 단 마음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다 읽으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각 책의 앞면에 있는 해설을 읽으십시오.

각권 3000원~4000원

전화(02)732-2403 팩시(02)739-7565 민중사

외국인외국인외국인

英·日·中·露·獨·佛語

全國大學新聞

광고문의의 741 166612

대표전화 739-8000, 7000, 6000
종로 YMCA 건너편 양우당서적코너 빌딩

BE WINNERS
외국어교육의 센터

“고유민속 재창조하여 학교특성 살리는 축제로”

1. 대학문화의 꽃, 축제-개성이 없다

5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이기간에 축제를 거행하고 본교에서도 '목백대동제'라는 축제를 거행한다. 축제는 모든 대학인이 기다리는 행사이다. 특히 대학에 처음 입학한 일학년들의 기대는 대단하다. 축제는 대학생활에 있어 학문적 성취와 함께 꿈과 희망을 만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창을 떠난 후에도 추억에 남을 만한 축제를 경험한다는 것은 행운이라 하겠다. 각기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들의 축제는 나름대로의 특성과 개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 행해지는 축제는 비슷하거나 형식면에서 서로 비슷하다. 대학 이름과 축제가 연관 달랐지 모든 대학에서의 축제는 대동제이다. 이러한 축제 문화의 획일성은 대학 문화의 민중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교수투고

동학의 축제문화에 대하여

하지 않다.
3. 개성있는 동국 축제를 개발하는 방안

따라서 동국 축제를 타대학과는 다른 독특한 축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중의 하나인 초파일의 풍속을 현대인의 감각과 기치판에 맞게 재창조 하여야 할 것이다. 민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맞게 변형되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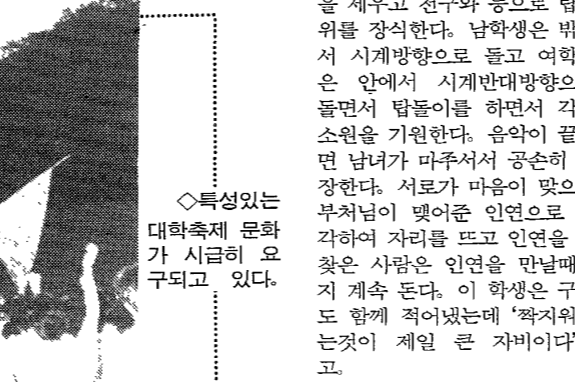
임 동 희
(문과대 사학과 교수·민속학)

수 있도록 내용의 구성과 더불어 정확한 비유, 행사에 걸리는 시간, 인원 등까지도 감안하여 재창조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완전히 심취한 학생도 생겨나 타과목에 낙제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할 정도로 열심인 학생도 있었고 한학기 더 수강신

- ... 대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축제문화에...○
- ... 대학 요즘 대학가 축제는 너무 천편일률적...○
- ... 이지 않느냐는 소리가 있다. 본교의 특성을...○
- ... 잘 살려내 동학만이 하나되는 좀더 의미있...○
- ...는 축제문화에 대해 조언하는 글이 있어 본...○
- ...난을 빌어 씁니다. (편집자) ...○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었다. 연등을 지금과 같이 학생들이 잘 모르는 연등원에서 만들지 말고 교내의 빈집안쪽 즉 불상 앞, 도서관, 정문 앞, 만해광장에서 만들면서 지나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히 참여하여 만들도록 유도하지는 안이었다.

또 '동 경연대회'를 열어 단 일시간내에 가장 많이 만드는 사람이 수상하는 경연대회도 열어도 '동 창작대회'도 열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듯 새로운 모양, 아름다운 등을 만든 사



특성있는 대학축제 문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사월초파일과 민속명절

이런 의미에서 본교가 가장 먼저 우리학교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가장 독특한 대학 축제를 개발하여 다른 대학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동국대학의 특성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본교는 불교의 건학이념에 의해 세워진 유일한 종합대학이다. '사월초파일'은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지켜온 민속 명절중의 하나이다. 사월 초파일의 세시 풍속은 불교도 뿐만 아니라 비불교도까지도 즐기는 풍속이다. 그러나 민속은 갈고 닦지 않으면 쇠퇴하게 마련이다. 동국 세시기의 기록을 보면 사월초파일의 관동 장이는 대단한 장관으로 묘사되고 있다. 집집마다 자녀 숫자대로 등을 밝게 밝힌 뿐만 아니라 평의 꼬리나 비단으로 장식을 하여 화려하게 그치지 않았고 적혀있다. 또한 '동'의 종류나 모양도 다양하여 그 모양에 따라 이름도 연꽃등, 수박등, 칠성등, 오형등, 공등, 배등, 용등, 잉어등, 거북등, 태평등, 만세등을 포함해 수십가지에 달하며 연등날 저녁에는 장인의 사람들로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상경하여 남산에 올라가 등 달아 놓은 것을 구경하는 등 서울 장안은 사람들의 인파와 등으로 불어 성을 이루며 밤새 떠돌아다니다가 불났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과거 초파일의 풍속에 비해 오늘날 초파일의 풍속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각 개인의 집에 서 등 달기 풍속을 찾아보기 힘들며 현존하는 등 종류와 모양도 몇가지 안되고 있다. 종합 대학인 동국 대학의 캠퍼스에도 연등을 달아 놓지만 서울 시민이 남산에 올라 구경하며 감탄할 만큼 화려하거나 장대

연등경연대회-탑돌이등 불교특성 살린 축제방안 많아

비 불교도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족성 짙은 행사 필요

연등경연대회-탑돌이등 불교특성 살린 축제방안 많아

민속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연두에 들것은 많은 비불교도들도 즐길 수 있는 축제여야 한다. 그래야 폭넓은 호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크리스마스 때 행하여지는 카드 보내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그리고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산타 크리스마스 할아버지등은 비 기독교도들도 즐기는 풍속이라 하겠다. 필자는 과거 삼사년전에 걸쳐 본인의 '민속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위와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었던 초파일의 민속을 현대인의 생활에 맞는 민속으로 재창조함으로써 동국 축제를 민족의 축제, 그리고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에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였다. 학생들의 호응은 의외로 열성적이었고 그들의 생각은 기발하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였다. 축제 참가자가 줄어들어서 시행할

연등경연대회-탑돌이등 불교특성 살린 축제방안 많아

비 불교도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족성 짙은 행사 필요

연등경연대회-탑돌이등 불교특성 살린 축제방안 많아

비 불교도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족성 짙은 행사 필요

연등경연대회-탑돌이등 불교특성 살린 축제방안 많아

비 불교도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족성 짙은 행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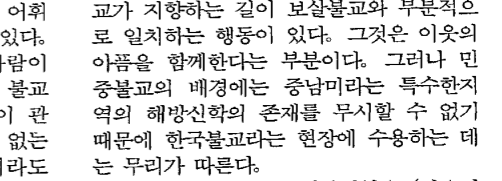
늘어나는 민중불교



이 영 자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런데 민중불교가 지향하는 길이 보살불교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행동이 있다. 그것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민중불교의 배경에는 중남미라는 특수한 지역의 해방신학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불교와는 현저하게 상충하는 점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바와같이 해방신학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이웃으로 되어 있다. 물질적 빈곤이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악마적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학이다. 남미라는 역사적 지역적으로 한정된 의미에서 나타난 것이 해방신학이다. 보프신부에게 참회하러 온 농부여성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참회할 때 '예수를 기념하는 성체'를 그냥 빵으로 생각하고 먹은 일을 울면서 고백했다는 것은 진정 감자는 인간의 양심을 아프게 한다. 이와 상황을 달리하지만, 모리스의 1920년대 해리스도 49세를 모신 신도의 봉납금을 어느 아기를 안은 가난하고 외로운 여성이 길가에 버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베를 베어 먹어 버린 적이 있다. 해방신학은 바르타의 오ρθopraxis)이 바르타에 섰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행위가 경제불평등, 사회부정을 개혁할 수 있다고 한다. 민중불교의 보살행적 실천의 이타행이 어느면에서 이 신학과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을 민중불교의 모델로 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교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이 시대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물질과 마음'의 문제는 결코 이원론적인 실재로 이해되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여름과 한약



생활속의 민족의학

여름철에 한약 특히 보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아마도 여름이 덥고 많이 흘리므로 약의 성분이 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될지 모른다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인체의 배설 분비의 기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기우에 불과하다. 즉 많은 체온조절을 위해 배설되는 수분과 미량의 노폐물이 함유되었을 뿐 약의 유효한 성분이 배출되는 양이 많으므로 약의 효과가 여름철이기 때문에 저하되는 일은 없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중에 여름철에 더욱 유익한 2가지를 소개한다. 그중 하나는 콩을 들 수 있는데 콩은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ABC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기를 고무 도와주고 갈증을 풀어주고 구토나 설사를 멎게한다. 가정에서 흔히 여름에 콩국수를 만들어 먹으면 좋은 것은 계절이 아니라 약효를 체득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콩에서 발아한 콩나

모라도가 탄생시킨 캐주얼 웨어 앰비라인

앰비라인은 MODERN BASIC LINE의 약자로 누구라도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감각적인 컬러, 자유롭게 연출되는 코디네이션, 자의적각격을 지향하는 캐주얼 웨어입니다.

MB LINE®

● 본사(명동) 696-8891-5 ● 1도(동대문) 777-3505 ● 신촌(북촌) 511-8891-3 ● 북촌(북촌) 753-6966 ● 63(종로) 782-5111 ● 뉴타운(동대문) 532-2940 ● 동대문(동대문) 475-4800-3 ● 무명(동대문) 529-5233
 ● 2동(동대문) 3555 ● 3동(동대문) 42-5115 ● 4동(동대문) 255-1501 ● 5동(동대문) 255-4070 ● 6동(동대문) 255-2233-40 ● 7동(동대문) 255-2274 ● 8동(동대문) 255-2274 ● 9동(동대문) 255-2274 ● 10동(동대문) 255-2274 ● 11동(동대문) 255-2274 ● 12동(동대문) 255-2274 ● 13동(동대문) 255-2274 ● 14동(동대문) 255-2274 ● 15동(동대문) 255-2274 ● 16동(동대문) 255-2274 ● 17동(동대문) 255-2274 ● 18동(동대문) 255-2274 ● 19동(동대문) 255-2274 ● 20동(동대문) 255-2274 ● 21동(동대문) 255-2274 ● 22동(동대문) 255-2274 ● 23동(동대문) 255-2274 ● 24동(동대문) 255-2274 ● 25동(동대문) 255-2274 ● 26동(동대문) 255-2274 ● 27동(동대문) 255-2274 ● 28동(동대문) 255-2274 ● 29동(동대문) 255-2274 ● 30동(동대문) 255-2274 ● 31동(동대문) 255-2274 ● 32동(동대문) 255-2274 ● 33동(동대문) 255-2274 ● 34동(동대문) 255-2274 ● 35동(동대문) 255-2274 ● 36동(동대문) 255-2274 ● 37동(동대문) 255-2274 ● 38동(동대문) 255-2274 ● 39동(동대문) 255-2274 ● 40동(동대문) 255-2274 ● 41동(동대문) 255-2274 ● 42동(동대문) 255-2274 ● 43동(동대문) 255-2274 ● 44동(동대문) 255-2274 ● 45동(동대문) 255-2274 ● 46동(동대문) 255-2274 ● 47동(동대문) 255-2274 ● 48동(동대문) 255-2274 ● 49동(동대문) 255-2274 ● 50동(동대문) 255-2274 ● 51동(동대문) 255-2274 ● 52동(동대문) 255-2274 ● 53동(동대문) 255-2274 ● 54동(동대문) 255-2274 ● 55동(동대문) 255-2274 ● 56동(동대문) 255-2274 ● 57동(동대문) 255-2274 ● 58동(동대문) 255-2274 ● 59동(동대문) 255-2274 ● 60동(동대문) 255-2274 ● 61동(동대문) 255-2274 ● 62동(동대문) 255-2274 ● 63동(동대문) 255-2274 ● 64동(동대문) 255-2274 ● 65동(동대문) 255-2274 ● 66동(동대문) 255-2274 ● 67동(동대문) 255-2274 ● 68동(동대문) 255-2274 ● 69동(동대문) 255-2274 ● 70동(동대문) 255-2274 ● 71동(동대문) 255-2274 ● 72동(동대문) 255-2274 ● 73동(동대문) 255-2274 ● 74동(동대문) 255-2274 ● 75동(동대문) 255-2274 ● 76동(동대문) 255-2274 ● 77동(동대문) 255-2274 ● 78동(동대문) 255-2274 ● 79동(동대문) 255-2274 ● 80동(동대문) 255-2274 ● 81동(동대문) 255-2274 ● 82동(동대문) 255-2274 ● 83동(동대문) 255-2274 ● 84동(동대문) 255-2274 ● 85동(동대문) 255-2274 ● 86동(동대문) 255-2274 ● 87동(동대문) 255-2274 ● 88동(동대문) 255-2274 ● 89동(동대문) 255-2274 ● 90동(동대문) 255-2274 ● 91동(동대문) 255-2274 ● 92동(동대문) 255-2274 ● 93동(동대문) 255-2274 ● 94동(동대문) 255-2274 ● 95동(동대문) 255-2274 ● 96동(동대문) 255-2274 ● 97동(동대문) 255-2274 ● 98동(동대문) 255-2274 ● 99동(동대문) 255-2274 ● 100동(동대문) 255-2274

제등행렬 폭력저지에 불교계 반발

6대 일간지 공개사과—관련자 파면요구 '폭력정권퇴진 범불교대회' 등 개최키로

지난 18일 있었던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을 경찰이 폭력으로 방해한 것에 대해 중앙승가대학, 본교석림회 등 불교승가들이 반발, 앞으로 노경권퇴진 운동이 비화될 조짐이다.

이번 사태는 87년 이후 처음 있는 불교 단합으로 5·18 제등행렬에 참가한 중안산하 주요사찰과 승가, 신도단체등 38개 불교 관련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등행렬 경찰폭력사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전현근스님(조계사주지), 부위원장 박희영스님(중앙승가대학장), 집행위원장 배영진(대불정)씨 등을 선출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는 행정부당국이 민족종교인 불교

에 대한 멸시와 탄압을 저행한 것이며 노경권의 부도덕성과 폭력성을 불교도에 대해서도 드러낸 것"이라 말하고, 오는 25일 조계사에서 스불교단담양단말 폭력정권 퇴진 범불교대회 개최 스프레드정권 퇴진을 위한 범불교도 서명운동 전개등을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조계종 법난 대책위원회, 대불정,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도 이번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6대 일간지를 통하여 공개 사과하고 치안본부장과 시경국장을 즉각 파면 처벌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불교계가 종파를 초월해 범불교도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성명서를 내는 등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 표명과 어제(21일) 불교법요식을 비롯한 모든 불교행사에 정부관계자를 배제할 것을 천명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불기 2535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기원대법회는 오후 6시부터 여의도 특별법회장에서 시민·학생불자등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조계종 중앙회의장의 경전봉독, 불교유리장의 봉축사,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문 봉독, 민족화합을 위한 기원문봉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7시50분경 법회를 마치고 서의현총무원장과 각종단스님들을 선두로 한 제등행렬은 마포대교를 거쳐 공덕동로타리, 충로2가, 조계사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서울가든호텔앞에

이르렀을때, 경찰이 고강경대군노제 시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행렬의 중지와 해산할 것"을 요구하며 각종단스님과 어린이들이 있는 대열에 대연발포루탄등을 무차별 난사하여 해산시키려 했다.

이에 뒤에서 행진하던 본교생 및 청년불자 대학생들이 경찰과 목싸움을 벌였으며, 경찰의 강제 저지·예산 방침으로 제등행렬은 새벽2시경에야 조계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등록금 환불
오는 24일까지

서울·경주캠퍼스 1학기 등록금 환불이 지난 20일부터 각 대학 교학과에서 오는 24일까지 지급되고 있다.

등록금환불이 시작되면서 각

과학생회는 지난달 말에 거론된 환불액의 집단체 사용방안을 학년토론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불교학과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를 통해 환불전액을 불상보수비로 사용할 것을 결의했으며, 일문과 전학년도 어학실 기자제 도입을 위해 환불액을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건축전 개최

건축공학과 제15회 건축전이 한학기동안 과학생들이 준비·제작한 41점의 작품들을 전시한 가운데 오는(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원훈관 5층 상설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건축전은 2학년이 주택을, 3학년이 오피스빌딩을, 4학년이 자유주제로 기획한 작품들을 전시하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상설전시장설치, 새로운 설계 심사제도의 시도, 파도로서의 본격적 운영등을 선보이게 된다.

도서관내 분실사고 대책마련 시급 도난방지 시스템 개발로 출입통제해야

최근들어 자판기안 금고도 난사건을 비롯해서 도서관내 도난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5일 밤11시경 도서관에서 발생한 자판기안 금고도난사건은 신성한 상아탑의 중심인 도서관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본교 도서관 도난방지의 일환으로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본교생과 외부인을 구별할 수 있는 출입 통제기

안된다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자판기안 금고도난사건이외에도 서적분실, 학생들의 책가방분실등의 피해가 막대하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사립대도서관들은 도난방지 시스템을 갖춘 도서관 전산화기부여져 도난사고가 현저히 줄어드는 데 비하면 본교의 경우는 도난방지시스템은 차지하고라도 출입자 통제조치 안되는 실정에서 앞으로의 도난사고에 대해 신속무책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도서관과의 도서관복지사업개선에 관한 면담에서 출입자통제기 등을 위해 마그네트카드를 이용한 출입검역시스템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도서관장과 총무처장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2학기부터 설치할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천여만원의 예산이 드는 이 검역시스템은 투자에 비해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외부인출입방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도서관내의 타인사용등 도서분실같은 이점도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서관내 도난방지는 물론 나아가 본교 도서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난방지시스템 설치로 시작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서관시설 전반에 걸친 전산화 작업을 시급히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앨범업체 선정과정 공개요구 총학·총대 "해명없이 계약못한다"

출입준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8시 학생회에서 신명스튜디오와 92년도 졸업앨범 제작을 체결했으나 지난 20일 총학, 총대가 업체선정과정의 명확한 공개를 요구하며 계약을 파기시켰다.

지난 17일 총학, 총대, 학생처의 합의로 계약이 체결됐으나 총학, 총대는 "업체 선정 및 그 과정의 공개와 제안문의 명확한 해명없이 사전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일괄에 임하였다"며 계약체결에 임한 것을 무효로 함을 학생회에 통보했다.

총학·총대 "해명없이 계약못한다"

출입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공개입찰에 입한 업체의 견적서, 91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총학, 총대에 공개하고 입찰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총학, 총대는 "공개된 자료가 매우 미흡하다"며 입찰을 무효화 시키고 이후 입찰제정 및 계약에 대해서는 총학, 총학, 총대의 공동책임하에 일괄 것을 밝혔다.

이에 출입준비위는 "계약이 체결된 이상 촬영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경영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국미전'
27일부터 동국관서

미술학과학생회 주최 동국미전이 오는 27일부터 6월1일까지 동국관(5층로비)에서 열린다.

교수회 제역할 못하고 '표류' 방치된 교수회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제11차 교수회 대의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4시 교수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일정 등을 논의, 오는 8월중순경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임시총회가 안전에 대한 의견차이가 없어 회의가 정지된 일정을 이틀간 대의원회에 일임함으로써 이뤄졌다.

지난 2일 열린 교수회 대의원회 회의 내용은 이따금 정기총회 역시 학기중에 열리던 예년의 관례를 깨고 8월중에 열릴 것으로 보여 지난해 10월 총장후보 선입

후의 교수회 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로 연기된 재단의 교수승진 및 임용 심사가 학교측에 통보되어 연기되고 그 과정에서 황필호(철학)교수가 임용을 탈락한 이후 교수회가 보여준 모습은 "과연 교수회가 학사행정 등 내재문제에 대한 올바른 견제·감시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황교수 탈락과 관련, 교수회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상향적인 견제 교수들 사이에는 재단의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연

출됐고 이는 강경대군 처사사건을 맞아 전개한 시국성명서 명명운동에서 단 20명만이 참여한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1학기에 나타났던 신규교수 채용과정에서 미찰 등록금결상 지연으로 인한 학사행정 마비, 황교수 탈락이후 사립학교법에 의한 재단합동 방지책 마련, 민병천총장 취임후 학교발전계획에 대한 논의등의 성과나 교수회의 움직임 없이 1학기가 마무리되는 일부에서는 대학의 한 주체로서 자기역할이 부재하다는 불만을 지적하

고 있다.

사립학교법 남용을 막기 위한 정관 개정작업, 총장의 대학발전계획 연구·검토, 교수회 활성화방안 재고 등은 교수회가 자기목표를 갖고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제안문제의 경제·감시를 위해 교수회의 정장성 규정, 활동공간보장, 자기목표충족을 위해 정관개정을 통한 교수회의 명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수회 성원의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분위기를 위해 모든 교수의 의사를 수렴하는 교수회 활성화방안도 중요하지만 단 구조적으로 재단으로부터 인정받는 단체로서의 활동을 위해 시급히 정관개정을 통한 자기명예와 자기역할 수행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올 예산 등록금 의존 79.7%

무리한 건축재정...복지시설 '배그덕'

본교 '91학년도 수입, 지출 자금운용 예산안'이 총3843억 6천2백90만5천원으로 지난해 30일 최종 확정됐다.

이중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학생등록금인 '납입금'이 3366억 4천47만1천5백원으로 전체 예산의 79.7%를 차지하며, 무상병원과 전산원수입인 재단전입금을 포함하는 '전입금'이 25억2천2백5천원, 각종 학교시설물 임대료를 포함한 기본재산수입이 5천2백만원, 작년도 예산 적립예금인 '채권예금'이 25억3천8천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와함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54%인 2백83억3천6백86천2천원, 유행고정자산매입이 전체예산의 9.5%인 36억6천9백77천원, 관리운영비가 34억4천1백11천3천원, 연구비가 28억1천4백6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해설: 예산화정시 등록금인 상충액정합의와 재단이사회 소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인해 학교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올해 예산화정내역을 작년과

비교해보면 수입예산의 가장 큰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등록금으로, 작년에는 총예산 3322억7천8백18만8천원중 2백66억1천1백34만8천원으로 의존율이 82%였으나, 올해는 79.7%의 의존율을 차지했다.

반면에 부속병원과 전산원수입인 재단전입금을 포함하는 '전입금' 및 기부원조금'의 예산화정비율은 7.3%에서 6.6%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로인해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진 재단이 학교행정에 가장

적극 투자해 등록금인상만을 높이고 학교육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올해 예산내역에는 정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별안기설치공사' 8천만원이 포함되었다. 또한 건물도색비, 도서관냉난방시설비, 화장실수리비등 일련의 '복지기금'이 6억4천1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전반적인 건물보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등록금증축비'에 관련된 것인데 지난해에 책정되었던 5억원이 남산개발금지에 따라 증축금지됨으로써 '제적됨에금인출액'에 포함되었는데 올해 4억원이 다시 책정된 점이다. 이러한 점은 학생회로부터 예산유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음해 등록금증축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남을 것으로 보여 예산안 화정에서의 신중성을 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희 기자)

91학년도 수입·지출 자금운용 예산안

수입의부		지출의부	
계	금액	계	금액
납입금	3,366,447,150	인건비	2,833,686,200
수입보조금	689,500	관비	3,441,113
전입금	252,225,000	학생경비	5,637,201
기타수입	52,000	인사관리비	579,000
기타수입	450,000	연구비	2,814,600
기타수입	939,200	기타경비	350,066
유류자산수입	80,000	채비	370,586
부차자산수입	100	부차자산지출	1,100
고정부채원금	500,000	유행고정자산매입	3,669,770
계정예금인출	2,580,000	유형고정자산취득	100
		고정부채상환	612,500
		채비예금지출	150,000
총계	38,436,905	총계	38,462,905

부처님오신날 무서운 대들령(?)

○...지난 1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본교종단인 조계종 지도층이 정치색채를 띠고 있는 것을 우려한 일부에 바랐는데...

이날 법회에서 불교지도자들이 "2천만 불자들이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으로 시좌해 강경대법회 시신위로 최우량이 날아오는 반인륜적 작태를 밝히는 No에게 경의를 표하며 칭찬 사상을 무색하게 했다.

이런 비보(?)를 접한 본회 전무대차 "중정법어는 부처님오신날을 맞는 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을 무슨 뜻으로 반민중적 발언을 하는지 부처님보다 대법명이 무서운 시대가 안타깝지만 합니디요"

자가용 통제무시=6공자녀(?)

○...아침 등교때 시속 80km로 정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당시는 학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부터 학생자가용 등교 자체유도를 위해 학생회가 이의 통제를 철회하려 하자, 이에 대비(?)한 자가용통제국이 교

남의 제삿상 점검

○...은 국민이 이번 강경대군 처사사건에 분노하고 무능정권에 대한 그동안에 쌓인 민우화요구시위가 내 이질수목 거세지는 저급, 내한민국 국민 비난문(?)을 발표한 나라가 있다는데...

사실인즉 미국의 웰스트리트 저널은 사실에서 '한 학교가 죽었다'

중부경찰서(?)

○...중부경찰서가 한밤에 시위대에 고립돼 독안에 든 쥐꼴이 되었다고.

지난8일 전국민적으로 열려온 국민대회에 시위진압을 위해 중부경찰서 진영이 모두 질(?)을 비유문을 꼭 받아놓고 있었는데 본교생 1백여명이 몰려가 '중부서진영·중부대 학생 하나되어'를 외치며 기세를 폈다고.

무단 중부경찰서도 도로를 차단했기(?)였던 한 학우 한 "경찰서 유치장까지 갔으나 이번 결의들이 시위 내내 '민중동구'의 깃발을 앞장세웠던 힘이었다"며 우물.

배적하고 생산적인 산업사회 창조

산업전 분야 - 금성산전이 있습니다

공장자동화 (FA)시스템
전기·전력시스템
계측제어시스템
빌딩제어시스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주차설비서비스

자동판매기
전동공구
환경·교통시스템

토탈파워·이 정도의 규모는 갖추어야 합니다.

공장자동화 (FA)분야
전기·전력분야
빌딩자동화분야
환경·교통시스템분야

공정자동화(FA)기기 및 시스템, 각종 빌딩설비 및 편의시설에서 전기·전력기기 공급까지 - 금성電 部門의 綜合技術力을 만나보십시오.

GS 금성 產電部門
●金星電電 ●金星計電 ●金星機電 ●金星아니얼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라(여의도) (신분리) ●대표전화 787-1114

산업전 분야 - 금성산전이 있습니다

공정자동화(FA)기기 및 시스템, 각종 빌딩설비 및 편의시설에서 전기·전력기기 공급까지 - 금성電 部門의 綜合技術力을 만나보십시오.

GS 금성 產電部門
●金星電電 ●金星計電 ●金星機電 ●金星아니얼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라(여의도) (신분리) ●대표전화 787-1114

공정자동화(FA)분야
전기·전력분야
빌딩자동화분야
환경·교통시스템분야

